

서남권의 중심도시 광주광역시

동북아경제권의 부상과아시아태평양시대의 도래와 함께,산업구조의 첨단화및 무한경제의 심화,산업구조조정 가속화로 정보통신시설의 급진전과정보경제의 심화를 통한 21세기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등장하고 있다.



1. 광주광역시의 산업구조

광주는 미래 성장산업인 광산업을 비롯해 첨단부품 소재산업, 디자인산업, 문화컨텐츠산업, 태양에너지산업, 환경산업 등 고부가가치형 지식기반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최근 담배, 영상음향 통신 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섬유제품 생산업에서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불황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의 5월 현재 인구는 1,075,000명으로 그 중 617,000명이 경제 활동이 가능하며, 4.9%의 국내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588,000명은 농림·어업에 26,000명, 광업·제조업에 81,000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 480,000명이 종사하는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다.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에 대한 현황으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 13개사에 19,727명이 종사하고 있고, 50인 이상 300인이하가 107개사에 10,5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50인 이하의 소규모 제조사업장은 2,531개사에 22,158명이 종사하고 있어, 중소규모 사업장의 수와 종사 근로자수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선 대단위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하남단지를 비롯한 첨단단지, 외국인단지, 평동단지, 본촌단지, 송암단지, 소촌단지에 총 1,451개사의 35,291명이 종사하고 있다. 그중 하남단지는 860개사의 24,316명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반면 광주지역에서의 금년 6월 현재 재해현황은 0.42%로 전국 평균 0.45%보다 낮다. 전국적으로 재해자와 사망자수가 20.2%, 19.3% 각각 전년 동기대비보다 증가하였으나, 광주에서는 재해자수가 35.9%의 큰폭으로 증가한 반면 사망자수는 1.5%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이 중 대부분은 중소기업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61.8%인 1,294명이 재해를 입었고,그 중 39명이 사망해 중소기업에서의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함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2. 광주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을 찾아서

디지털 시대를 이끄는 초우량기업 IG이노텍

국내 전자산업 발전의 기반 역할과 전자부품 분야에서 광디스크 드라이브용 모터와 튜너 및 모듈레이터 사업을 세계 1위로 끌어올린 기업,SAW필터,PA모듈,전동모터 등의 이동통신용 부품과 하이브리드 LCD 헤드 등의 디지털미디어 부품,LEDID 등의 광 부품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생산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IG이노텍(허영호 대표이사)을 찾았다.

지난해부터 6시그마 경영 기법을 접목하는 경영혁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강도 높은 혁신 활동을 추진한 결과,매출에 있어 지난 4월 현재 목표대비 101%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IG이노텍 광주공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뛰고 있는 진춘국 과장을 만났다.

안전업무를 하게 된 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2000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에 산업안전보건 유공자 정부포상인 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할 정도로 안전활동에 있어서는 어느 경력 많은 안전인 못지 않다.

안전업무를 하면서 생활의 습관까지 변했다고 하는 진춘국 과장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 안전이 몸에 밴 습관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교육 과 안전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매월 실시하는 부서별 ESSH(Ergo, Environment, Safety, Health) 평가가 그 중 하나로,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을 통해 자율안전 정착을 이끈다.또한 생산 근로자들이 수시로 현장에서 잠재하고 있는 위험사항을 보고 조치토록 하는 “잠재위험상” 도 눈에 띄는 활동이다.



▲ 진춘국 과장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금연을 유도하는 것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안전활동이다.지금까지 9차에 걸친 금연학교 운영은 남자 근로자의 흡연율 61%를 41%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지속적인 금연 유도를 위해 100일 금연자에게 금연 시계를 제공하는 것은 진춘국 과장이 추구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 및 활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다.

현재 IG이노텍은 인도네시아, 중국, 멕시코 등 해외에 진출하고 있어 세계 선진기업과의 경쟁을 위한 안전 Lead Up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따라서 늦었지만 2004년까지 ISO 14001과 OHSAS 18001을 취득하겠다

고 한다. 이를 위해 진춘국 과장은 OHSAS 18001 심사원 자격을 취득하였다. 여기서 진춘국 과장이 얼마나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이는 진춘국 과장의 삶에서도 볼 수 있다. 어려서 자주 듣던 가요 “님과 함께”의 가사처럼 초원위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 살겠다는 소박한 꿈을 꾸었던 5남매 중 4째인 그는 어려서의 소박한 꿈 때문인지 지금까지 고향 나주에서 부모님과 알콩달콩 살고 있는 한국 옛 정서를 가진 인물이다.

올바른 것이 안전인 것과 같이 진춘국 과장의 올바른 삶을 통해 IG이노텍을 넘어 광주지역의 안전문화 정착에 소중한 사람이 되길 기원한다.

안전이 있는 건설현장, 금광기업(주)

21세기의 기업문화를 선도하고 우리사회의 꿈과 미래를 소중히 여기는 기업,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기업, 신선한 시각과 미래지향적인 기업, 금광기업(주)에서 안전을 꽃 피우는 현장이 있어 찾았다. 2001년 1월에 착공하여 2004년 1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광주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공사(김학두 소장)현장은 공동도급 현장으로 금광기업(주)이 시공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현장에서의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윤 주임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이 현장에서 안전 업무를 처음 수행한 김상윤 주임은 현장에서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본사, 인근 현장의 안전 실태에 대해 벤치마킹을 하였고, 지금은 김상윤 주임이 주관적이고, 능동적인 안전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동안의 형틀, 골조공사, 철골공사 등 고소작업이 한창일 때에는 추락, 낙하물에 의한 재래형 재해 위험이 컸다. 시스템화된 안전시설 설치, 철저한 기본 안전장구 착용,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아끼지 않는 투자의 3박자가 이루어져 무사고 무재해가 형성된 것이다.

최근 태풍 매미 등 잦은 비로 방수공사가 끝나지 않은 지하층의 유입수로 인한 감전재해 위험 또한 김상윤 주임이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었다. 아직 전기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지만, 기본적인 안전수칙부터 시작하여 감전재해를 예방하는데에는 적극적이었다.

먼저 현장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매일 작동점검을 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즉시 교체하였고, 현장에 전기 투입을 위해 설치된 전선은 피복 손상유무를 먼저 점검하고, 전선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전선거치대 등으로 전선을 보호하고 감전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장의 안전은 깨끗한 현장에서 시작함을 알았고, 이는 근로자의 안전의식도 높아짐을 알았기에 이 현장을 끝내고 다른 현장에서 안전 업무를 수행할 때 이



▲ 김상윤 주임



러한 기본에서부터 안전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김상윤 주임은 말한다. 이러한 굳은 의지의 금광기업(주)에서 21세기의 기업문화,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광주지역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

3. 재난방지 시스템

광주광역시에서는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폭우, 해일, 지진 등으로 발생한 자연재해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재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인위재난에 대한 신속한 초동대처를 위해 24시간 상황근무를 하고 있고, 비상시를 대비해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평상시의 재난관리과 직원 3개조는 각종 재난사고 상황의 접수·확인, 재난유형·규모 등 판단, 계통보고, 유관기관, 단체에 통보·전파 및 초동조치 강구, 재난관련 정보파악 확인, 모든 재난상황 총괄관리 정리보고 및 전파를 위해 24시간 상황근무하고 있다.

만약, 1,2,3급 재난발생시,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재난의 발생·진행·수습과정 등의 상황을 종합관리, 중앙·구 사고대책본부,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관련부서, 유관기관·단체 등에 대한 상황전파 및 수습·복구 지원대책 협의·조정·추진을 하고 있다.

또한, 1,2급 재난발생시에는 현장상황반장·4개지원반으로 구성된 현장상황반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이 때 재난발생 현장상황관리를 비롯해 재난현장에서 사고대책본부·현장 지휘본부 등과 협조하여 사고수습 및 복구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사고수습상황 등을 종합상황실과 수시연락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최종덕기자〉